

성명서

“세무플랫폼의 탐욕, 납세자의 권리를 무너뜨렸다... 책임 없는 SI세무플랫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6월 2일, 세금신고 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로 다수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서, 가산세 부과는 물론 감면 혜택 배제, 건강보험료 상승, 세무조사 위험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신고 하려던 납세자들이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힐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첫째,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환급을 미끼로 무분별한 고객 유치, 기계적 자동신고, 공제·감면의 무차별 적용을 일삼으며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며, 무자격자인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신고 대행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쌤157’은 금융기관 제휴를 앞세워 대규모 신고를 접수하다 전산장애로 약 29,000명에게 피해를 주고도 명확한 보상책 없이 사익만을 추구해 조세 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둘째, 세무플랫폼은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기술 중개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쌤157’ 피해자들은 사전 안내 없이 신고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고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히는 등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서비스는 단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세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나, 세무플랫폼은

소득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 환급을 유도하는 구조로 위법 소지가 크므로 세무대리 유사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 셋째, 세무사회는 삼점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쌤157’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 역시 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며, 정당하게 신고하려던 국민이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넷째, 정부는 더 이상 세무플랫폼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합니다.

-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검검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 국민 앞에 공개하라
- 불성실 신고 유도 및 탈세 가능성이 확인된 세무플랫폼의 홈페이지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
-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는 ‘불법세무대리’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라.

-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세정 질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2025년 6월 19일

한 국 세 무 사 회

“**납세자** 곁에는 언제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끝까지 **납세자** 편에 서서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